

1. Wittgenstein은 그의 “논리-철학 논고” (Tractatus Logico-philosophicus)에서 “모든 가능한 학문적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문제 (Lebensprobleme)는 전혀 건드리지 않았음을 느낀다.”(6.52) 했다. 여기서 그가 의도하는 학문 (Wissenschaft)은 자연과학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론적 학문 모두를 망라한 것이다. 그런데 어떤 학문도 삶의 의미나 목적, 고통, 사랑, 슬픔, 두려움, 미움, 선, 악 등 우리에게 실제로 중요한 문제들은 설명되지도, 해결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Wittgenstein은 이런 것은 모두 학문의 영역 바깥에 있는 신비(das Mystische)라 했다.(6.522). 기독교 신앙을 가진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음미해 볼만한 발언이다.

2. 도무지 학문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삶의 문제는 전혀 건드리지 못하는가? 수학으로부터 역사학에 이르기까지 학문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학문이란 이름을 가지려면 원칙적으로 “이론적”이라야 한다. “이론적”이란 말의 함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3세기에 활동했던 그리스 철학 역사가 Diogenes Laertus가 전해 주는 Pythagoras (c570-c495 BC)의 한 발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상은 축제와 같다. 어떤 사람은 경기하러 오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온다. 그러나 가장 우수한 사람은 관객(theoroi)이다. 노예근성을 가진 사람은 인기나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지만 철학자들은 진리를 추구한다.”란 주장이다. 여기에 나오는 “관객”(theoros)이란 단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론”(theory)이란 말과 함께 “보다”(theoreo)란 동사에서 유래한 것이다. 즉 돈에 관심이 있는 장사꾼이나 인기를 추구하는 재주꾼은 욕심 때문에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지만 그런 것에 관심 없는 철학자들만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욕심뿐만 아니라 감각을 통해 갖는 경험도 주관적이므로 믿을 수 없고 오직 이성적 사고만 객관적이며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수학이 가장 객관적이고 이상적인 학문으로 취급된 것도 그 때문이다. 지식의 시작은 지적 호기심 혹은 “경이”(驚異)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으나 그 호기심 뒤에는 “확실성”(certainty)의 추구가 작용했다. 이것은 후에 Descartes나 Kant의 글에서 엿볼 수 있다. 바울 사도와 2세기 교부 Tertullianus는 인간의 지식에서 확실성을 찾는 그리스 사상이 십자가의 도와 병립할 수 없음을 잘 알았다.

3. 그 이후 서양의 학문은 목적론에서 인과론으로 방법론이 바뀌지는 커다란 paradigm shift를 거치면서 오늘날에는 논리적이면서 동시에 실증될 수 있어야 (verifiable) 이론적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달라졌다. 경험의 요소를 도입하므로 현대 학문은 그리스 철학에서보다 구체적인 사실과 현실을 더 잘 반영할 수 있게 되었고 더 큰 설명 능력과 적용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 뛰어난

기술들이 개발되고 세련된 사회 제도들이 제정되어 삶의 편리와 문화 발전에 엄청나게 공헌했다. 이제는 국가의 힘이 인구, 영토, 자원, 군인의 수와 용기가 아니라 지식수준에 의하여 결정되는 지식기반 사회가 되어 있다. 기독교 선교도 현대 학문의 발전에도 공헌했지만 선교 등에서 그 혜택도 많이 받았다. 어쨌든 이론적 학문은 사람들에게 자연과 사회현상을 가장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인류의 삶을 전대미문의 수준으로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주어서 인류가 가장 신임하고 추구하는 대상이 되었다. 역사상 전 인류가 가장 신봉하게 되어서 일종의 인류 공통 종교의 위상을 누리고 있다. 19세기의 La Place나 21세기의 Dawkins 같은 사람들은 그런 종교의 제사장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La Place나 Dawkins는 Wittgenstein가 지적한 것에는 대응할 수도 없고, 실제로 Dawkins는 대응하지 않았다. 이론적 학문은 본질적으로 그 지적에 대답할 수 없기 때문이다.

4. 우선 학문이 이론적이 되려면 보편적이라야 하므로 그 대상은 동질적(homogeneous)이라야 한다. 논리는 동질적인 내용에만 타당하다. 달과 500원은 논리적으로 연결될 수 없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이웃 사람 김철수, 내 서재 앞에 서 있는 소나무는 학문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오직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되는 심장의 박동, 돈에 대한 욕망은 이론이 취급할 있고 모든 소나무들과 공통되는 탄소동화작용은 이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개체가 아니라 개체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양상들(aspects)만 취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이론적 학문의 대상은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재하는 것에 공통되는 “이념”(ideas)이다. 이 세상에는 구체적인 김씨, 이씨는 존재하지만 학문의 대상인 “사람”은 실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아흔 아홉 마리 양은 그대로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사랑은 학문과는 전혀 이질적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에 대해서는 학문은 무력하다. 그런데 지금 당장 나에게 소중한 것은 보편적인 인간이 아니라 구체적인 나의 사랑하는 아내, 아들, 딸, 이웃이며, 그들의 기쁨, 슬픔, 의미 있는 삶이다.

5. 나아가서 이론은 개체의 양상들을 통합해서 취급할 수 없다. 소나무는 탄소동화작용도 하지만 경제적 가치도 갖고 있고 아름답기도 하다. 그러나 탄소동화작용을 연구하는 식물학과 나무의 경제적 가치를 취급하는 경제학,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통합하는 나무학은 없다. 인류 전체, 현실 전체를 다 아우른다는 명분을 가진 철학도 모든 것을 하나의 범주로 환원하려는 유혹을 계속해서 받았지만 성공하지 못하므로 이론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 하여 학문의 지위가 위협을 받고 있고 대학에서 퇴출될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모든 학문 분야가 각개전투를 벌이는 동안 세계 전체, 인류 전체는 깨어지고, 뒤틀리고 병들고 있다. 삶의 문제가 무시되는 정도가 아니라 인류의 생물학적 존속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된 것이다. 전 인류의 가장 큰 신임을 받는 이론적 학문의 발전이 바로 그 위협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생태환경의 오염, 그 가운데도 지구온난화는 과학기술 발전 때문이고 이는 자연과학의

발달 없이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 역사학자 L. White Jr.는 성경이 “땅을 정복하라”고 가르치면서 자연을 세속화(Entgöttlichung, 非神格化) 했기 때문에 현대 자연과학이 가능했고, 그 과학에 근거해서 현대 과학기술이 발달될 수 있었으므로 지금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기독교가 책임져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 변명하기가 쉽지 않는 정죄다. 현대과학이 시작될 16세기에 종교 개혁 교회가 이론적 학문의 약점을 알고 미리 경고했어야 하지만 비현실적인 후회다. 학문은 많은 병을 고치는 약을 주었지만 새로운 병도 주었고 지금은 불치병으로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 19도 환경오염과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들이 있다. 이 병들도 역시 과학의 힘으로 고칠 수 있기를 바라지만 개연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공익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위기의식과 책임의식에 의한 결단이 개입해야 하는데 이는 이론적 학문과 무관하다.

6. 그 외에도 학문의 주장은 언제든지 폐기될 수 있고 수정될 수 있다. K. Popper가 말한 Falsifiability Principle 및 과학방법론의 정설로 인정되고 있는 hypothetico-deductive method에 의하면 모든 학문 이론은 사실에 의하여 반증(falsify)되기 전까지만 타당하다. 즉 모든 이론은 반증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많은 이론들이 수정되거나 폐기되었다. 더구나 Thomas Kuhn이 말한 paradigm shift가 일어나면 그 전 paradigm에서 이뤄졌던 모든 이론은 단순히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폐기될 수도 있다. 학문적 이론이 조금씩 발전하는 것(evolute)이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질(revolute)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학문의 주장은 원칙적으로 “잠정적”이다. 우리가 삶과 영혼을 걸만한 대상은 되지 못한다.

7. 그리스도인이라 하여 학문을 무시할 이유는 전혀 없다. 학문도 하나님의 통치영역에 속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J. Kepler는 천문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했다. 학문은 인류의 삶을 안전하고 풍성하게 하는데 엄청난 공헌을 했고 앞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축구 선수가 축구경기 규칙에 따라 공을 차듯, 그리스도인 학자들도 학문 공동체가 역사적 과정을 거쳐 만들어 형성한 경기규칙(rule of game)에 따라 열심히 학문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학문은 다른 game과 달리 “진리 주장”(truth claim)을 펴기 때문에 그 본성을 올바르게 알아야 신앙과의 갈등을 피할 수 있고 La Place나 Dawkins의 과학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인 학자들은 누구보다 현대학문이 불러일으키고 일으킬 수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해악을 줄이고 극복하려는 책임 의식을 가지고 학문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정치가들이나 종교인들의 책임일 뿐, 우리는 객관적 진리 추구만 하면 된다.”는 식의 “전문가 바보”(Fachidiot)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